

스테판 J. 링크, 오선실 옮김, 『글로벌 포드주의 총력전: 나치 독일,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산업화를 향한 경쟁』 (너머북스, 2023). 512쪽  
[Stefan J. Link, *Forging Global Fordism: Nazi Germany, Soviet Russia, and the Contest over the Industrial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328 pp.]

우동현†

한국 과학기술사를 전공한 오선실 박사의 성실한 번역을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스테판 링크의 2020년도 저작 『글로벌 포드주의 총력전』(이하 『총력전』)은 20세기 현대사의 중요한 행위자인 소련과 독일이 대량 생산이라는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어떻게 미국발(發) 산업이념이자 기술의 집합체인 포드주의(Fordism)를 앞다투어 받아들였는지를 실증적으로 재구성한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북한과 소련의 관계사를 전공한 평자는 박사학위 과정 재학 당시 원서를 접하고 국역될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번역을 정당한 학술 성과로 거의 취급하지 않는 학계의 관행과 번역자에 대한 실로 열악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중요한 학술서의 국역에 힘쓰고 있는 너머북스 출판사를 통해 한국어로 나온 이 책을 다시 읽게 돼 무척 반가웠다.

원서 *Forging Global Fordism*은 출간 직후 영어권 학계의 찬사와 관심 속에 유관 학회 세 곳이 주는 도서상을 받았고, 수많은 서평이 쟁쟁한 저널들에 게재되었으며, 토인비상 재단(Toynebee Prize Foundation) 온라인 좌담회(2021)나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dhw001234@kaist.ac.kr

H-Diplo 좌담회(2022) 등 학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도 널리 회자되었다. 20세기 전반부의 기술사를 지구적 측면에서 재구성한 노작인 이 책은 과학기술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엄밀한 역사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역사학자들에게는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지구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 우리말로 펼쳐지는 『총력전』의 흥미진진한 내용과 사학사적 함의를 살핀 뒤, 번역상의 문제를 언급할 것이다.

2024년 현재, 평자를 포함해 냉전사 연구자들은 지구사·관계사·장기냉전(Long Cold War) 등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개념들은 모두 20세기 전반부의 역사(예컨대, 1·2차 세계대전)와 후반부의 역사(예컨대, 냉전사)를 엄밀히 구분 짓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각 시기의 시대적 특징이 어떤 맥락 속에서 중첩·지속·변용되는지를 포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학술적 전환의 자료적 근거는 단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시작된 “문서고 혁명(archival revolution)”이다. 아쉽게도 2024년 현재 거의 종료된 이 “혁명”을 통해 개별 연구자가 일생에 걸쳐 다 읽지 못할 만큼의 방대한 사료(史料)가 공개되었다.

비밀 해제된 사료는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학사적 가능성을 선사했다. 예컨대, 오드 베스타(Odd Arne Westad)의 『냉전의 지구사(The Global Cold War)』는 출간 직후부터 냉전사 연구의 “성경”으로 인정받았고 연구의 지평을 획적으로 대폭 확장했다.<sup>1</sup> 베스타 이후 냉전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대결, 즉 동서 대결로만 보는 “냉전적 이해”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각 권역 내부의 갈등과 상충에 주목하는 한편, 논의의 축을 동-서가 아닌 남-북에 두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빅터 샤우(Victor Seow)의 『탄소 기술관료주의(Carbon Technocracy)』는 중국의 대표적인 탄광 도시인 푸순을 통치한 세 개의 다른 이념적 정치 체제의 자원 관리를 비교해 국경을 초월하는 관계성의 역사를 강조했고 냉전사 연구의 지평을 종적으로 확대했다.<sup>2</sup> 『총력전』은 20세기 역사를 새롭게 보려는 이러한 전환을 선도하는 미

1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옥창준, 오석주, 김동욱, 강유지 옮김,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에코리브르, 2020)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2 빅터 샤우, 이종식 옮김, 『탄소 기술관료주의: 동아시아 탄소 중독의 기원과 종말을 찾아서』 (뽕간소금, 2024) [Victor Seow, *Carbon Technocracy: Energy Regimes in Modern*

국 역사학계의 성취로 “냉전”이나 “전간기(戰間期)”라는 사학사적 그림자에 가려 탐구되지 않았던 소비에트 러시아와 나치 독일의 미국 선망과 포드주의 수용을 가독성 높은 서사로 설명한다.

『총력전』은 서론과 결론에 더해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두 장은 19세기 전후부터 1920년대까지를 다루고 주된 지역적 배경은 미국 중서부의 디트로이트이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소련과 나치 독일이 어떻게 포드주의를 들여왔고 자국의 산업에 적용했는지를 재구성한다. 5장에서는 독소 전쟁에서 어떻게 포드주의가 나치의 팽창 기획과 맞물렸는지, 그리고 소련식 포드주의가 피비린내 나는 승리 달성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서술한다. 결론에서는 냉전기 미국의 지구적 패권 하에서 재조정된 포드주의가 어떻게 서독과 소련에서 자동차 생산의 이념적 기반을 구성했는지를 개괄하며 글을 맺는다.

링크는 1장과 2장에서 헨리 포드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어떻게 거대한 성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그 비결은 포드의 산업적 터전인 미국 중서부 특유의 민중주의(populism) 전통이었다. 민중주의는 대량 생산(mass production)과 생산자주의(producerism)라는 포드가 지닌 비전의 바탕을 이루었다. 하여 포드는 특허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았고, 기술에 대한 원천 공개(open source) 원칙을 고수했다. 포드주의의 이념은 외환의 상시적 부족과 국제 시장에서의 낮은 경쟁력으로 고통받던 소련과 독일에 대단히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양국의 정책가·기업가·기술자들은 포드주의의 성지인 리버 루즈(River Rouge)에서 대량 생산을 직접 목격했고, 혁신을 거듭하던 최신 기술과 공정 지식에 어렵지 않게 접근했다. 2장이 잘 보여주듯, 포드의 생각은 소비에트와 나치 독일의 이념과도 깊이 공명했다.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 직무 학습 촉진, 숙련된 엘리트 창출, 사회적 프로젝트로서의 대량 생산 등 포드주의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극복을 꿈꾼 나치의 민족(Volk)에 대한 “서비스(dienst)”라는 생각(128-9), 제정 시절의 낙후성을 속히 극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창출하려던 소련의 목표(148-9)에 각각 엄청난 호소력을 가졌다.

3장과 4장에서 링크는 포드주의 이념의 산물인 미국발 자동차 생산 기술의

이전이 소련과 독일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재구성한다. 미국과 유럽·러시아 현지 공장의 운영, 설계 도면의 획득과 적용, 숙련 노동자 영입(특히 러시아어와 독일어 구사자), 소련과 나치 독일의 자동차·재무장 계획 내 포드주의적 흐름 생산(flow production) 원칙의 배치 등 링크의 유려한 필치로 서술된 기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압권이 라 할 만하다. 이 두 장을 읽고 나면, 독자는 소련의 사례가 독일의 사례보다 좀 더 실패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주했고 포드주의를 소련에 도입하는 데 크게 활약한 스테판 디베츠(다이베츠로 번역되었으나 이는 오기이다)의 사례가 증명하듯, 소비에트 자동차 생산은 자재의 비효율적 사용, 저숙련 노동자의 활용 등 포드주의와는 상반되나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주의주의적 접근(“스타하노프 운동”)을 선호했고, 이후 디베츠는 스탈린의 대테러(“대숙청”으로 기술되지만, 원어를 좀 더 엄밀히 번역한다면 “대테러” 또는 “대공포”)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부르주아 전문가”와 같은 운명을 맞는다(3장). 반면 나치 독일의 산업 역량은 미국에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소련 보다는 나았다. 게다가, 독일은 명목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유지했다. 윌리엄 베르너의 사례처럼, 나치 독일도 미국의 산업 체계와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주된 이유가 미국의 자동차 생산 방식이 장갑차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임을 링크는 놓치지 않는다(4장).

5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맥락 안에서 소련과 나치 독일 각각이 수행한 흐름 생산의 제 면모를 다룬다. 나치식 포드주의는 계약 노동자, 전쟁 포로, 강제수용소 수용자를 포함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력을 악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방식은 만병통치약이 되기엔 많은 결함을 내포했다(337). 흥미롭게도, 전쟁은 나치와 소련의 경험을 뒤바꿨다. 나치가 고갈된 인공과 자원을 잔혹하리만치 더 효율적으로 쥐어 짜내려고 분투하는 동안, 소련 지도자들은 국내 노동력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승리에 더 많은 투자를 단행했다. 링크에 따르면, 소련 지도자들은 흐름 생산의 성공적인 시행을 저해한 일부 노동 관행을 축소했고, 어렵사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결론에서 링크는 대중적인 가정을 뒤엎는 과감한 주장을 재확인한다. 링크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포드주의 출현의 충분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을 실증했고, 개발의 상호성, 즉 이념적 자기 구속에 간혀 “일국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소련”이라는 냉전적 추정치 아닌 경제적 열위에 처한 소련(그리고 독일)의 국제시장 참여를 새롭게 보는 렌즈를 제공하며 글을

맺는다.

『총력전』이 특히 한국에서 과학기술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주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직도 많은 연구자를 옥죄는 인식론적 제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론적 제약이란, “냉전,” “북한,” “소련” 등 특정 단어나 개념이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 요소를 미리 상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역사를 탐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냉전”을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대결로만 보고, 그 시기 일어난 모든 역사상을 “이념적 대결”이라는 도식적인 프레임에 넣어 해석하는 일은 빈번한 편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러시아나 동유럽 문서고 자료를 활용한 역량을 갖추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 문헌의 내용을 비판적 검토 없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며 그것이야말로 북한 과학기술의 “저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지적 에너지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행위를 멈추고, 소련과 나치가 “이념”을 초월해 미국을 배우려고 했던 역사상을 재구성한 『총력전』처럼 광범위한 다국적 자료에 대한 면밀한 독해에 기초해 역사 행위자들이 맞닥뜨렸던 문제들과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방식을 최대한 엄밀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론적 제약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는 국경 안에 고착된 연구 방식을 버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여러 교환 형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지점에 주목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북한사 서술이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었다.<sup>3</sup> 1959년을 기점으로 북한 과학기술계에도 “주체”의 메시지가 부상하지만, 이를 다국적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사실(史實)로 보고 북한이 외부와 교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처럼 단정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있어 아쉬움을 자아낸다. 평자는 현재 모스크바를 향한 김일성의 구걸이나 다름없는 과학기술상의 지원 요청이 냉전기 내내 이어졌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단행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자는 링크가 활용하기도 했던 러시아 국립경제 문서고(RGAE)에 소장된 수 천 쪽이 넘는 북한과 소련의 과학기술·경제 교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거의 탐구되지 않은 이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은 냉전기를 통틀

3 Donghyun Woo, “Leveraging Uneven Cooperation: Socialist Assistance and the Rise of North Korea, 1945-1965”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22).

어 소련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총력전』의 소련과 독일이 포드주의와 미국식 생산 체계를 선망했던 것처럼, 북한은 소련의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기술을 항상 갈구했다. 1960년대 북한이 때때로 유럽이나 일본 판매자들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故) 나탈리야 바자노바 박사와 최근 이주호 박사가 재확인한 것처럼 북한은 과학기술 구매를 위해 결국 소련으로 회귀했다. 기존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이러한 조국적이고 다층적이고 역사적 연결을 드러내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소련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 번역상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총력전』의 외국어 표기와 번역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특히 역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축약어인 소련(the Soviet Union)을 “소비에트연방”으로 옮겼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러시아어로 “soyuz”는 “연맹” 또는 “연합”을 의미하지, “연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소련을 구성하는 정치체 중 가장 큰 공화국의 정식 명칭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이었다. 역서를 내기 전에 소련사를 전공하는 학자에게 검토를 부탁했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를 차치하고서도, 러시아어 고유명사 표기도 잘못된 경우가 일부 보인다. 이 하에서 족수와 오기(謬記), 올바른 표기법, 원문을 제시하겠다.

- 105쪽, 브레미아, 브레마, Vremia
- 145쪽, 타이아, 타냐, Tania
- 162쪽, 피아타코프, 파타코프, Piatakov
- 210쪽, 라이코프, 리코프, Rykov
- 210쪽, 프로발로프, 프리발로프, Privalov
- 210쪽, 프스카레프, 피스카레프, Piskarev
- 211쪽, paryshev, Paryshev
- 211쪽, 트로이트스키, 트로이츠키, Troitskii
- 222쪽, 카르코프, 하르코프, Khar'kov
- 227쪽, 몰로토프-1, 몰로토프-1, Molotov-1

이상에서 제시한 인명 표기는 한국어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러시아어 명을 영어 원문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다. 한편 개념을 정확하

게 옮기지 못한 경우도 제법 등장한다. 쪽수와 오기, 올바른 표기법, 원문, 주해를 제시하겠다.

22쪽, 소비 명령, 통제 소비, command consumption, 357쪽에서는 정확히 쓰고 있다.

22쪽, 연계된 자유주의, 배태된 자유주의 또는 섭입된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

29쪽, 통제 경제, 경제적 통제정책, economic dirigisme

151쪽, 선발된 자, 발탁자, vydivizhentsy

151쪽, 촉진자, 발탁자, vydivizhentsy

164쪽, 충격을 받는 노동자들, 돌격 노동자, shock workers, 207쪽에서는 정확히 쓰고 있다.

172쪽, 소비에트 최고경제위원회, 소련 인민경제최고회의, the Supreme Economic Council of the Soviet Union

173쪽, 중화학인민위원회, 중공업인민위원부, People's Commissariat of Heavy Industry, 191쪽에서는 중공업인민위원회로 쓰고 있다.

178쪽, 부농과 쿨라크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다, 쿨라크로 쓰고 부농이라는 설명을 해야 한다, kulak peasants

181쪽, 첼리압, 첼라빈스크 트랙터 공장, Cheliabzavod, 205쪽에서는 정확히 쓰고 있다.

187쪽, 글레브메탈, 글라브메탈, Glavmetall

187 및 189쪽, 지붕 사업단, 최상위 기구, roof agency

192쪽, 연합체, 콤비나트 또는 연합 기업소, combines

206쪽, 굴라드, 굴라그, Gulag

208쪽, 코만디로프카, 출장 또는 연수 등 맥락에 맞게 번역, komandirovka

222쪽, 부시니츠, 부시긴주의자들, the Busyginites

314쪽, 충돌 과정, 속성 과정, crash course

한편 문서고 표기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205쪽, RGAE archives, 러시아 국립경제 문서고(RGAE)

217쪽, TsANO archives, 니즈니노보고로드 주 중앙문서고(TsANO)

마지막으로 영어 원문의 국역이 잘못된 부분이다.

314쪽, “윌리엄 베르너는 … 눈부신 국가사회주의 경력을 쌓았다” → “윌리엄 베르너는 … 국가사회주의자로서 눈부신 경력을 쌓았다.”

345쪽, “기적이 없는 한’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것” → “기적이 필요할 것”

358쪽, “청중은 … 구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 “청중은 이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365쪽, “어떻게 직원 수만 명이 거대한 사업을 압도하는 일로 인정, 목적, 시민 의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 “우쭐대는(overweening) 거대 기업에 근무하는 수만 명의 직원이 어떻게 인정, 목적의식, 시민 의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올바른 표기법과 번역어를 찾는 과정에서 소련사 및 우크라이나 현대사 전공자이신 고광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아울러 독일사 연구자가 이 번역서를 읽고 독일과 관련된 내용상의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여 『총력전』의 2쇄부터는 역자의 성실한 번역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길 희구하며 서평을 맺는다.